



3면

국회 교육위, 시·도교육청 국정감사

# 전주매일

2021년 10월 13일 수요일 (음 9월 8일) 제287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내년 예산 국회단계 증액 쟁걸음

신원식도 정부부지사  
안도걸 기재부 차관 포함  
핵심 인사 차례로 면담  
용지 현업축사 매입 등  
도정 현안 반영 건의

도, 19일 송 지사 주재  
예산 확보 전략회의 개최

전북도가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의에 앞서 기재부 예산실 핵심인사를 면담하는 등 내년도 국가예산 국회단계 증액을 위한 쟁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12일 신원식도 정부부지사는 세종정부청사를 찾아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을 비롯해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 강원규 사회예산심의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등 예산 키맨(Key Man)을 차례로 만났다.

신 부지사는 기재부 핵심 예산 키맨들에게 신산업구축 동력사업과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 등 전북도 국가예산 중점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국회 단계 증액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신 부지사는 먼저 안도걸 제2차관을 만나 특히, 부처단계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현업축사 매입, 소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을 상기시키고, 반드시 국회단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의 핵심사업인 국산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탄소섬유



신원식 전북도 정부부지사는 12일 세종정부청사를 찾아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사업비 반영도 요청했다.

또한, 익산 잠잠마을 피해회복 사업으로 가족중심형 힐링공간을 위한 환경회복센터 조성과 공장 인근 생태복원을 추진하는 '환경요양 피해지역 친환경농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국회단계 반영을 건의했다.

이어, 신 부지사는 예산실 키맨(Key Man)들이 각 심의관을 차례로 방문, 정부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실현을 위해 선도사업으로 추진중인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사업의 국비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또, 새만금 챔버리 용지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상징성 있는 조형물을 설치해 새만금의 글로벌 도시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건립에 필요한 설계용역비 반영을 건의했다.

다음으로 환경호 재정관리국장을 찾아 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서 심사 중인 전북도 예타사업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 건의했다.

새만금 트라이포트 완성을 위한 '새만금항인입철도 건설', IT 기술이 융합된 최첨단 농기계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첨단농업을 선도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새만금의 친환경적 개발과 생태체험·환경교육의 장 조성을 위한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 사업 등이 11월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기재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지휘부 방문 활동을 텔레이로 이어가며,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

먼저, 오는 14일에는 조봉업 행정부지사가 문화·관광 및 복지·안전 예산 관련해 기재부 핵심 라인 방문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19일에는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개최해 국회단계 대응 전략을 정비하고, 정치권과 텔레이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 등 국회단계 신규·증액 반영에 전진부각할 계획이다. /유호성 기자

“땀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 '지역발전 기여 3인' 선정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경제대상' 김용현  
'문화대상' 강광  
'나눔대상' 안현숙씨



김용현

강광



안현숙

전북도가 12일 도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제26회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수상자는 ▲경제대상 김용현 ▲문화대상 강광, ▲나눔대상 안현숙 등 3명이다.

올해는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후보자 추천위원회와 시·군 및 기관·단체의 후보자 추천을 거쳐 4개 분야에 총 27명의 후보자가 접수됐다.

후보자 검증에 위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분야별 예비심사와 본심사 등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경제와 문화, 나눔 등 3개 분야에서 1명씩 수상자를 선정했고, 혁신 분야는 2명의 후보자가 예비심사 결과 미추진됐다.

경제대상 수상자 김용현씨는 (주)정석 케미칼 대표이사로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기술력 확보와 품질향상을 위한 인재 채용 꾸준한 지역사회 기부 활동 등의 공적을 인정받았다.

문화대상 수상자 강광씨는 전북 시·군체육회장 협의회장으로, 각종 전국대회 유치, 체육기반시설 확충 등 특별 동호인 클럽 활성화 등 전북도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평가 받았다.

나눔대상 수상자 안현숙씨는 원불교전북봉공회 전북지회장으로, 30년간 다양한 사회봉사활동과 이웃돕기 기

금마련, 코로나 대응종사자에게 도시락 지원 등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기여했다.

시상식은 오는 25일(예정)에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상패와 메달이 수여될 예정이다.

이날 심사를 주재한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은 각 분야에서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고 큰 성과를 내신 분에게 드리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역할을 다하고 계신 훌륭한 도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

## “이제는 낮은 자세, 전북 공약 발굴 최선”

민주 김윤덕 의원  
이재명 대선 본선 진출에  
“전북도민들께 감사하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열린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인 김윤덕 의원이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열린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인 김윤덕 국회의원(전북 전주갑)이 전북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의원은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많은 전북도민들이 함께 해주 경선이 잘 끝났다. 도민들께 감사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먼저, 김 의원은 이날 후보측의 결선 투표 주장에 대해 “사퇴한 후보의 득표를 무효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당헌·당규가 있는 만큼 논란은 있었지만, 이날 후보 캠프도 경선 결과를 수용할 것이다. 나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금 상황에 열린캠프 사람들이 경선에서 이겼다고 하기 보다는 좀 더 낮은 자세로 겸손과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 나가는 발언과 처신이 중요하다”며 “민주당이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양보하며 민주당의 이름으로 본선을 치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의 전북공약에 대해 김 의원은 “경선에서는 큰 틀에서만 전북공약을 발표했다”면서 “본 캠프가 구성되면, 모든 민주당 후보

“이제 열린캠프의 일 끝나  
본 캠프 구성되면  
모든 후보들의 공약  
도, 시·군이 준비한  
공약들 다듬어  
세부적인 공약 나올 것”

들의 공약, 민주당 전북도당과 전북도 시·군이 준비한 공약들을 다듬어 세부적인 공약이 나올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공약의 핵심은 공약이 부족하게 아니라 집행률에 있는 만

큼 이재명 지사가 그동안 성남시장과 경기지사를 하면서 90% 넘는 공약률을 보였다.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구성될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 대해서는 “열린캠프서 일했던 사람들이 복잡하지 않을 것이다. 목표는 경선에서 승리가 아닌 정권재창출이다”면서 “상임본부장은 송영길 대표가 맡지 않겠는가. 정세균 전 총리 등도 당연히 함께 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윤덕 의원은 “이제 열린캠프의 일은 끝났다”며 “경선이 길어 힘들었지만 열린캠프 조직총괄본부장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자랑스럽다.” /유호성 기자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Fishing Village (대한민국 농어촌의 희망을 경영합니다).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coastal area with a road and buildings, and text promoting the village's development and tourism. Logos for KFS and other organizations are visible at the bottom.